관훈통신

8
2022
회보 제202호

"진실과 의를 내세우고 거짓과 사악을 물리쳐 자유와 평화의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의 혼탁한 사회에서 신문이 짊어진 사명이 무겁고 귀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계의 사조(思潮)는 숨가쁘게 흐르고 현실의 과업은 겹겹이 절박해 오는 이때 어찌 언론만이 수구(守舊)하여 주저앉아 있겠는가.

자성(自省)과 개신(改新)으로 취약과 편협과 횡포를 박차고 새 사조를 호흡하여 능히 세대의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1957.8. 관훈클럽회지 제1호 권두언에서

회원논단
기자공동체를 그리워함 …… 2

충북 보은 문화유적 답사기
빗속의 답사 열정…, 소중한 추억 담았다 …… 4

역자노트: 팬데믹 이후의 세계 애프터쇼크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정책 핵심들
한 문장도 섣불리 넘길 수 없었다 …… 6

역자노트: 롱 게임
한국의 대미·대중 전략 마련에
요긴한 토론 자료 되길 바란다 …… 7

클럽소식 …… 8

회원동정 …… 9

편집주간 칼럼
'꼰대 정치'의 위기 증폭 공식 …… 16

관훈클럽
Kwanhun Club



기자공동체를 그리워함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전 한국일보 주필

언론사 돌며 호통치던 '홍박' 홍종인

대한언론인회가 2019년 11월에 발행한 '언론계 거목들'에는 한국일보 창간 발행인 백상 장기영(1916~1977) 등 네 분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언론계 선구자들'의 생애를 조명한 책인데, 오자·오류가 너무 많아 놀라울 정도다.

하여간 그 책 중 '대기자 홍종인 언론자유 수호와 국토사랑'이라는 글에서 인용할 게 있다. "학력은 오산중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타고난 재능과 부단한 노력으로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쌓아 언론인의 스승을 자처"했던 '홍박' 홍종인(1903~1998)에 대해 이 글은 '초사적(超社的) 무임소 대기자'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평생 사회부 기자였던 홍박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종횡무진 언론계를 휘젓고 다니며 잘못이 있으면 고하를 막론하고 호령했던 분이다. "무식해" "창피해" "이것도 글이라고" 이런 말로 거침없이 면박을 주기도 했다.

편집인협회나 언론연구원이 주최하는 언론인 세미나가 열리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나타나 일장 훈시를 했다. 논평해야겠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있으면 누가 청탁하지도 않았는데 원고를 써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문이나 잡지사에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박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지금은 없어진 한국일보 건물에도 수시로 찾아왔다. 3층 편집국 입구에 검은 가방을 든 그분이 나타나면 기자들은 슬슬 자리를 피했다.

"○○○ 기자가 누구야?"
"네. 접니다."

그러면 홍박은 날씨 기사에 태종우(太宗雨, 음력 5월 초열흘 무렵 내리는 비)를 언급한 기상대(지금은 기상청) 출입기자나 활 잘 쏘는 우리 올림픽 선수들을 주몽의 후예라고 보도한 기자를 칭찬하고, 오자를 낸 기자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누군가 음료를 갖다 드리면 아무데나 앉아서 그걸 마시며 훈계·설교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끝까지 듣고 있겠는가. 연설이 지겨워진 기자들이 하나둘 주위에서 사라지면, 홍박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언론사로 발길을 옮겼다. 남의 언론사에 찾아가 함께 일한 적도 없는 아들이나 손자뻘 기자들을 혼내며 가르친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풍경이다. 아니, 그렇게 하기는 고사하고 요즘은 남의 회사 건물에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다.

남의 신문 후배 칼럼에 격려의 전화

나는 2007년 2월 1일자 한국일보 '임철순 칼럼'에 '波市(파시), 한국일보'라는 글을 썼다. 경영난으로 건물을 팔고 다른 곳에 세를 들어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곧 헐릴 건물에 대해 어떤 말이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비감에 젖어 쓴 글이다. 나는 그때 주필이었다.

글이 나간 날 아침, 지금은 고인이 된 다른 신문사의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회의와 다른 일로 바삐 오가느라 통화를 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몰랐던 것 같다. 몇 번 숨바꼭질을 한 끝에 그분이 세 번째 전화를 걸어왔을 때 겨우 통화를 했다.

그 글은 "머잖아 없어질 13층 건물을,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한층 한층 어루만지듯 올려다보고 들어왔다"로 끝난다. 다시 읽어보면 지나치게 감상적인데, 한국일보

의 동료나 퇴직한 선배들로부터는 어떤 반응도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 그 철저한 외면과 의도적 무시는 건물을 팔아넘길 만큼 회사를 망친 경영주에 대한 반감과 신문사의 장래에 대한 절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분이 전화한 이유는 "잘 읽었다, 그 마음 잘 알겠다, 한국일보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통화를 하면서 나는 좀 목이 메었던 것 같다.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주 만나거나 가깝게 지낸 사이도 아니었던 다른 회사의 후배에게 나라면 그렇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까지 격려해줄 수 있었을까. 선배가 될수록 후배를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나는 이제야 겨우 깨치고 있는데.

매체가 다르면 적으로 아는 기자들

나는 2012년 말로 한국일보에서 퇴사한 뒤 '언론과 문화의 융합과 조화'를 지향하며 한국언론문화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다. 주된 활동은 그때그때 현안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였고, 논설위원 제도를 만들어 분야별 칼럼을 쓰게 하는 한편 각 신문에 실린 칼럼 중 좋은 글을 내가 선정해 필자 동의를 얻어 메일로 발송하는 것이었다. 메일 수신자는 거의 다 언론계 종사자들이었다.

그런데 몇 달 해보니 기자들의 매체별 배타적 특성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문인상경(文人相輕, 글 쓰는 사람들은 서로 우습게 안다)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자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바쁜 줄 알며 남의 글을 가벼이 보거나 잘 읽으려 하지 않는다.

이념과 진영의 논리가 강한 매체의 기자들일수록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메일을 수신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다른 회사에 소속된 선배들이나 다른 신문에 실린 외부 칼럼니스트들의 글은 한사코 읽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과 다른 칼럼이 배달된 경우, 메일로 항의를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기자까지 있었다. 놀라웠다. 언론계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소속이 다르더라도 선배라면 존중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마땅할 텐데 요즘 기자들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언론계가 천박한 정치판 닮아서야

내가 일선 기자로 한창 뛸 때인 1970~1980년대에 조간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둘밖에 없었다. 그러니 경쟁과 승부는 치열했고, 낙종의 아픔과 상처는 오래갔다. 요즘처럼 특종을 해도 그저 그렇고 낙종도 대수롭지 않은 시대가 아니었다. 사회부 사건기자는 서울을 동과 서로 나누어 주로 경찰서와 병원을 돌며 야근을 했는데, 그날 상대 지의 동쪽 야근자가 누군지 서쪽 야근자는 누군지, 성격이 어떤지 서로 환히 알고 있었다.

사이가 좋은 기자끼리는 서로 물 먹이지 않으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야근을 돌기도 했고, 야근이 끝나는 새벽에 '또순이집' 등에서 소주와 라면을 함께하며 온갖 대화를 나누었다. 통금이 있던 시대에는 0시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는 회사 동료들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술꾼 배달'을 핑계로 빠져나와 다른 '도코다네(獨種)' 취재를 하곤 했다. 상대 기자의 종적이 잡히지 않으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불길한 예감은 다음 날 시커멓게 보도된 상대 지의 특종과 나의 낙종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면서도 기자들은 친하게 지냈고, 부친상 모친상에 서로 찾아가 조문을 하곤 했다. 쓰고 보니 먼 옛날 아주 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 매체만 다르면 적으로 치부하고 선·후배 간의 예의도 박약한 요즘 언론계 풍토와는 판이한 '전설'이다.

대부분의 신문이 조간으로 전환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기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 데다 인터넷 매체가 폭증하면서 기자공동체는 무너지고, 기사는 묽어지고 불면 날아갈 듯 얇아지고, 비문(非文)이 횡행하고, 독자를 끄는 선정적 낚시질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다. 매체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해도 사실 자체는 보도하고 봐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언젠가 전직 국회의원이 윤길중(1916~2001) 전 국회부의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여야가 갈려 싸우다가도 그분이 "이놈" 하면 다들 조심스러워하면서 말을 들었다. 지금은 당만 다르면 물어뜯는다. 그 싸움이 얼마나 천박하고 유치한가. 언론계도 이와 다르지 않게 된 것 같다. 2024년이면 나는 언론계 50년을 맞는다. 이제 늙고 낡은 기자는 기자공동체가 그립다.

빗속의 답사 열정…, 소중한 추억 담았다

문성진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초여름 녹음이 짙어진 속리산 법주사에 난데없이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우산을 받쳐 들고 절 마당을 가로지르니 우뚝 선 팔상전이 눈에 들어온다. 높다란 5층 목조 건물의 위용이 듣던 대로 대단하다. 팔상전에 들어서니 벽면에 석가모니의 일생이 담긴 그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창 너머로는 거대한 금동미륵대불이 굵은 빗줄기 속에 금빛 자태를 한껏 뽐내며 그윽한 미소를 던지는 듯했다. 6월 23일 관훈클럽 가족들과 함께 떠난 충북 보은 지역 문화유적 답사는 여정 끄트머리의 폭우로 다소 불편은 있었어도 기억은 오래 남을 듯하다.

오전 8시 정각 프레스센터를 출발한 관광버스는 2시간 40분가량 달려 충북 보은 우당고택(愚堂古宅)에 도착했다. 속리산에서 흘러내리는 삼가천 중류의 삼각주에 위치한 우당고택은 100년 역사를 지닌 전통가옥이다. 전남 고흥의 부농 선영홍과 그의 아들 선정훈이 경복궁 중건에 참여했던 대목장을 고용해 1919년부터 3년쯤 걸려 공들여 지은 집이라고 한다.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들어선 고택은 110칸으로 규모가 제법 컸다. 이 집을 지을 때는 신분제도가 사라진 이후라 다양한 건축 기법들이 자유롭게 적용됐다. 우당고택을 지은 선씨 일가가 왕족도 당상관도 아니었지만 높다란 솟을대문과 궁궐에서나 쓸 수 있는 둥근 기둥을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새로운 스타일의 한옥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해설사가 들려주었다. 그는 "안동 하회마을과 마찬가지로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곱게 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상) 명당에 자리 잡은 개화기 새로운 형태의 한옥으로 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설명을 보탰다.


관훈클럽 회원과 가족들이 우당고택 안채를 살펴보고 있다.

선영홍의 호인 우당에서 이름을 딴 우당고택은 안채·사랑채·사당의 세 공간으로 나뉜다. 사랑채는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선씨 가문 후손이 마침 출타 중이라 보지 못하고 안채 구경으로 만족해야 했다. 왕궁이나 고관대작의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솟을대문을 거쳐 들어선 안채는

'H'자형 가옥 구조로 공간이 넉넉했다. 안채 뒤뜰로 돌아가 보니 우람한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가득 달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녹색 열매를 집어 든 관훈클럽 가족 한 분이 "이게 뭘까요?"라고 묻는다. 아무리 봐도 매실나무인지 다래나무인지 긴가민가하다. 꽃도 나무도 좀 잘 알고 즐길 수 있으면 좋으련만 늘 아쉽다.


법주사 팔상전. 비가 세차게 내려 그 앞에서 멋있는 단체 기념사진을 찍지 못했다.

어느덧 점심 식사 시간, 주메뉴로 능이버섯탕이 나왔다. 일행 한 분이 "송이 위에 능이"라며 "많이들 드시라"고 권했다.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과연 '일능이송삼표'라는 속설이 나온다. 약효로는 능이가 1위, 송이가 2위, 표고가 3위라는 뜻이다. 능이는 암예방과 기관지, 천식, 감기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이 커서 그리스·로마인들은 '신의 선물'이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다. 식탁에 올려진 능이탕은 쌉싸름한 국물에 쫄깃한 버섯이 입에 잘 감겼다. 넉살 좋은 식당 주인장은 특별히 준비한 서비스라면서 아카시아 튀김을 상에 올렸다. 바삭바삭한 꽃 튀김에 곁들인 탁주 한 모금은 흐린 날 오찬 반주로 제격이었다.

운 좋게 이번 여정 참가자 중 최고령인 K선배와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은퇴한 지 20년쯤 됐다는 K선배는 "매번 관훈클럽 문화유적 답사에 참가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둔다"면서 "무엇보다 반가운 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 이 모임이 좋다"고 하셨다. K선배는 답사 직전 옛 신문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느낀 소회를 전했는데, 퍽 인상적이었다. "그때는 사장부터 막내 기자까지 하나가 돼 똘똘 뭉쳤고, 그런 끈끈함이 30년도 넘게 지난 지금 만나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때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기에 서로의 유대감이 세월을 뛰어넘어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후배에게 품이 넓은 선배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다음 일정은 법주사다. 어릴 적 정이품송 일화를 듣고 꼭 가봐야지 했던 곳이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번 답사에 동참한 것도 법주사와 정이품송을 보기 위함이었다. 법주사는 553년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고찰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찰이다.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라는 현판이 걸린 법주사 일주문에 들어서니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다. 좀 더 걸으니 '세조길'이다. 세조길은 지독한 피부병과 조카 단종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노년의 세조가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해 순행했던 길이라고 한다.

법주사의 백미는 역시 팔상전이다. 5층 목탑 형식의 이 건물은 신라 때 지어지고 1624년 조선 인조 때 중건됐다. 석가의 팔상 그림이 봉안된 높이 22.7m의 팔상전은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됐다. 팔상전을 마주하니 홍콩 배우 이소룡과 얽힌 일화가 생각났다. 이소룡은 50년 전 팔상전 사진을 보고 한국의 어느 탑 꼭대기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무술 고수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영화 '사망유희(死亡遊戲)'를 구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사망유희'는 이소룡의 유작이 됐고 예정됐던 팔상전에서의 마지막 결투 장면도 영화에 담기지 못했다.

마지막 여정인 정이품송 답사는 더 사나워진 빗줄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졌다. 답사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단체사진 촬영도 할 수 없었다. 급기야 관광버스가 법주사 경내까지 들어와 일행들을 밖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관훈클럽 사무국 관계자는 "법주사 경내에 버스가 들어온 것은 처음"라고 전했는데, 이 역시 특이한 경험이다. 정이품송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날 답사는 두고두고 곱씹게 될 것 같다. 일정표에 정해진 명소 여행에 더해 언론계 선배들과의 귀중한 시간 여행까지 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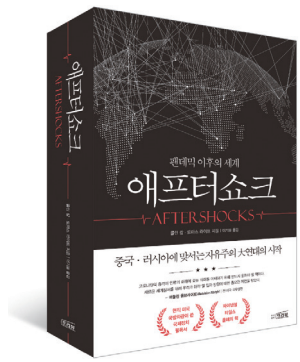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정책 핵심들 한 문장도 섣불리 넘길 수 없었다

이기동
도서출판 프리뷰 대표·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 책의 영문판 타이틀은 Aftershocks: Pandemic Politics and the End of the Old International Order(애프터쇼크: 팬데믹 정치와 낡은 국제질서의 종언)이다. 한 세기에 한 번 오기 힘든 위기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당연한 궁금증이라 생각했다. 국제정치학계의 저명한 학자 두 명이 역사적, 실증적, 그리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이를 분석한 책이다.

주제에 이어 눈길이 간 것은 두 명의 공동저자 가운데 한 명인 콜린 칼의 이력이다. 현직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로이드 오스틴 장관, 캐슬린 힉스 부장관에 이은 펜타곤 서열 3위 인사이다. 요행히 책을 집필 중이던 2021년 초 현직에 임명되어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나갈 새 안보정책의 핵심 내용을 이 책이 설명해 주는 셈이 됐다. 원고지 2500장, 672쪽 분량의 '벽돌책'이다. 한 문장도 섣불리 넘길 수 없어 완역했다. 꼼꼼한 자료수집과 분석력, 정보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접하며 작업하는 내내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추가설명과 출처 표기를 담은 참고 노트가 모두 1200개에 달한다. 연구자와 관심 있을 독자들 생각에 번역본에도 빠짐없이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타고난 일방주의자였다"로 시작되는 책의 첫 문장에 저자들이 인식하는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전통적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부정하고 동맹과 조약, 협정을 무용지물로 폄하했다. 트럼프의 이런 인식이 팬데믹과 맞물려 지구적인 대재앙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이다. 또 팬데믹 위기의 한가운데 중국과 미국 두 슈퍼파워의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막아 샘플 채취를 방해하고, 진실을 외부에 알리려는 자국 시민과 의료인, 언론인을 탄압했다. 팬데믹을 악용해 홍콩의 주권운동을 진압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사실상 끝장내 버렸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는 역사상 팬데믹을 재구성했다. 1918~1920년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 종전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던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흥미롭게 소개한다. 제2부는 팬데믹 초기 국가별 대응 상황, 제3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집중분석 한다. 팬데믹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에 미친 영향력을 설명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결론에 해당하는 제4부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팬데믹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종말을 고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세계가 각자도생에 나서며 혼란과 피해를 더 키웠다. 이제는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른바 자유주의 가치동맹의 구축이다. 중국, 러시아 같은 비자유주의 세력과 미국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이 자신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의 대결 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로 불편한 진실이다. 한국의 위치도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대중 전략 마련에 요긴한 토론 자료 되길 바란다

박민희·황준범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왼쪽)과 정치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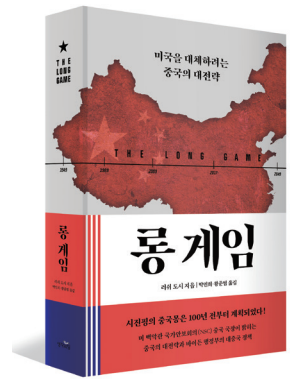
기자라면 누구나 담당 분야의 주요 당국자나 취재원을 직접 취재해 생생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쓰길 원한다. 그런 점에서 외교안보 쪽은 악명이 높다.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외교 당국자들은 언제나 암호 같은 발언으로 언론과 숨바꼭질을 벌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7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중국 담당 선임국장인 러쉬 도시(Rush doshi)가 〈The Long Game〉을 출간했을 때, 세계 주요 언론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정책 담당자가 중국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읽을 드문 기회가 아닌가.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한창이던 2021년 9월 10일. 이 책의 번역을 제안하는 편집자의 메일을 받았다. 기자로서 욕심이 났다. 하지만, 책 파일을 살펴보니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몇몇 동료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포기하려던 무렵,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던 황준범 기자가 수락했다.

2021년 말부터 서울과 워싱턴을 텔레그램과 메일로 '오가며' 번역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했다. 황 특파원은 2022년 봄 귀국해 국제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을 보도하며 더욱 분주해졌고, 5월부터는 정치부장의 중책을 맡았다. 공동 번역자로서 나는 차마 그에게 "번역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두 번째 난관은 책 자체였다. 원서 412쪽을 한글로 옮기니 632쪽이다. 책 전체에 1500개가 넘는 미주도 달려 있다. 지은이가 중국 지도자들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의 연설과 회고록,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비롯한 방대한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자로서는 1500개의 미주를 달고 확인하는 작업이 어떤 번역보다 힘든 난공사였다.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의 갈등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시기에, 이 책이 되도록 빨리 독자와 만나야 한다는 출판사의 판단에 동의했고, 7월 초까지는 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회사의 기사 마감보다 더 무겁고 빠듯했던 번역과 교정 작업 마감 일정을 겨우 맞출 수 있었다. 우리가 회사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퇴근 이후와 휴일을 최대한 활용해 '주경야독'에 성공했다는 데 안도감을 느낀다.



이 책은 냉전이 끝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이 처음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식 질서를 대체하려는 대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분석한다. 미·중은 1979년 수교 이후 한때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는 '준동맹'이었지만, 1989~1991년 톈안먼 시위 무력진압, 걸프전, 소련 붕괴를 거치면서 중국은 미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대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온 과정을 중국의 문헌과 역사적 맥락을 엮어가며,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을 읽는 데는 3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전략 변화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방향과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입장에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격랑에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역자로서 우리는 이 책이 한국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6월 29일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관훈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급, 고희경 SBS 일반뉴스부 선임기자, 원 장관, 박민 관훈클럽 총무(문화일보 논설위원), 고정애 중앙일보 논설위원, 권태호 한겨레신문 저널리즘책무실장 겸 논설위원.

관훈클럽은 6월 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이다.

관훈클럽 박민 총무(문화일보 논설위원)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고정애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희경 관훈클럽 기획담당 운영위원(SBS 일반뉴스부 선임기자)과 권태호 서기담당 운영위원(한겨레신문 저널리즘책무실장 겸 논설위원), 박병률 관훈클럽 편집위원(경향신문 경제부장),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급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화물연대 파업, 산하 공기업 개혁 외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당내 갈등 등 정치 현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현안과 관련,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임대차법 3개 조항 가운데 부작용이 큰 '2년 플러스 2년' 강제 전세 보장 조항과 '전셋값 5% 인상 상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주택의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에 선제 대응을 못 한 데 대해 반성한다"면서 "이번 협상 타결이 일시적 봉합이 되지 않게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화물운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사안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낮은 지지율 원인을 질문받자 "윤석열 정부와 한배를 탄 처지에서 여론조사를 일일이 분석·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겸허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유튜브 채널 〈관훈클럽TV〉 첫 단독 생방송





관훈클럽은 6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를 유튜브 채널 〈관훈클럽TV〉에서 단독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국회방송이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중심방송사로 참여하지 않고 관훈클럽 자체 유튜브 채널로 관훈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방송은 연합뉴스TV, KBS, SBS,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관훈클럽TV 생방송 제작 업체인 뷰구공일은 국토교통부의 유튜브 채널 관리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화면을 직접 송출해 방송했다.

다른 방송사들은 관훈클럽TV 화면을 활용해 유튜브 생방송을 중계했다. 연합뉴스TV와 KBS, SBS는 자체적으로 관훈클럽TV 영상 원본을 복사해 방송했다. 연합뉴스TV는 화면 오른쪽 상단의 '관훈클럽TV' 로고 아래에 '영상 제공' 자막을 넣었다(사진 위). KBS는 관훈클럽TV 로고 아래에 'KBS NEWS'를 넣었고(사진 아래), SBS는 관훈클럽TV 자리에 'SBS뉴스' 자막을 덧입혔다.

이에 따라 관훈클럽TV 자체적으로 관훈토론회 등 각종 행사를 생중계하고 기존 방송사에 관훈클럽 자체 화면을 제공할 계기를 마련했다. 관훈클럽은 앞으로 뷰구공일과 함께 다양한 토론 행사를 자체 방송 역량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 저술지원 언론인 10명 선정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이사장 김진국)은 8월 11일 2022년도 하반기 저술출판 지원 대상 언론인 10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500만 원씩 지원한다. 선정된 언론인과 저술할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김인구(문화일보 체육부장) BTS와 함께한 결정적 순간들
- 신다은(한겨레신문 사회정책부 노동담당 기자) 일터의 죽음: 산재는 어떻게 파악되고 기록되나
- 최재현(KBS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 부장급 기자) 취재파일 1994
- 이세형(채널A 경영전략실 정책기획팀장) 중동학 콘서트
- 권선미(연합뉴스 이슈&탐사팀 기자) 국내 유일 여군 출신 기자가 전하는 북한군 이야기
- 송광호(강원도민일보 북미특파원) 외국에서 본 남한·북한 느릿느릿 사소한 '통일'
- 김지영(전 경향신문 편집인) 피동형 기자들과 나쁜 뉴스
- 여규병(전 동아일보 어문연구팀 선임기자) 우리말 한자어 어울림 사전
- 이민우(전 중앙일보 편집국 스포츠 에디터) 정주영과 쌀집 할머니(정주영 회장을 추모하며)
- 이찬휘(전 SBS 기자) 모르는 게 약

정신영기금 설립 45주년 9월 7일 기념식 진행

정신영기금은 오는 9월 7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관훈동 기금회관에서 기념식을 연다. 설립 기념일(11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 행사를 며칠 앞당겼다. 행사에는 역대 정신영기금 이사장과 이사진, 역대 관훈클럽 총무와 임원진, 회원들을 비롯해 그동안 기금 출연에 도움을 준 기업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훈클럽 새 편집위원에 민동용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관훈클럽은 6월 30일 임원회의를 열고 새 편집위원으로 민동용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사진)을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이재명 채널A 정치부 선임기자가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민 차장은 1994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8월 외교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뒤 그해 12월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문화·정치부 기자를 거쳐 사회·정책사회·문화부 차장을 지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에 김광호 회원



김광호 회원이 6월 24일 경향신문 편집국장에 임명됐다.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경향신문 기자로 입사했다. 사회·문화·체육·국제부 기자, 정치부 차장과 부장, 정치에디터, 기획에디터 겸 문화부장, 신문국장 등을 지냈다. 관훈클럽 65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승진·전보

경향신문

- 박재현 (콘텐츠랩부문장) 신문국장
- 오창민 (편집국장) 논설위원(이상 6.23)
- 손제민 (문화부장) 논설위원(7.3)

동아일보

- 정연욱 (논설위원) 논설위원 국장급(6.24)

채널A

- 동정민 (편집부 차장급) 편집부 부장급(6.24)

조선일보

-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사회부장
- 황대진 (정치부 차장대우) 논설위원(이상 6.18)

TV조선

- 강상구 (선거방송기획단장) 디지털뉴스부장(8.1)

중앙일보

- 강남규 (글로벌머니팀장) 국제경제 선임기자
- 임장혁 (정치부 차장) 사회2팀장
- 조강수 (논설위원) 기획취재1담당(이상 7.3)

JTBC

- 전진배 (전 한화 전력부문 부사장·전 JTBC 부국장) 보도 담당 대표이사 부사장(8.16)

한국일보

- 정영오 (대외전략실장) 논설위원(8.9)

MBN

- 박진성 (기획실장) 삼송미디어센터 제작본부장 상무이사
- 이동원 (상무) 전무이사(이상 7.1)

〈행정부·입법부〉

국무총리실

- 김수혜 (전 쿠팡 전무·전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공보실장(7.4)

국회

- 고재학 (한국일보 경영전략본부장)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7.5)

대통령실

■ 이기정 (YTN 디지털뉴스센터 국장) 홍보기획비서관(8.4)

활동

■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

8.12 강원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제26회 만해대상' 시상식에 참석함. 강 회원은 만해축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등이 후원하는 만해대상 심사위원장이다.

■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국회의원·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8.1 〈憲政〉 8월호 기획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란에 《회의록과 자료 모두 공개하라》 기고.

■ 고승철 (전 나남출판사 주필·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6.27 〈법률신문〉 '문향(文香) 오디세이' 난에 《담대한 기상의 한국 음악인》, 7.11 《조자룡 교수를 아십니까》, 8.15 《언어 놀이…이름에서 받침을 빼면 어떻게 읽힐까》 기고.

■ 고흥길 (가천대 석좌교수·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7.4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열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함.

■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6.16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사, KBS, 법무부 공동주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주고 수상자를 축하해 줌.

7.9 서울신문사와 경기 연천군 체육회가 공동주최한 '제1회 2022 연천 DMZ 랠리' 입상자에게 상을 주고 축하해 줌.

7.24 경기 이천시 H1클럽에서 열린 KLPGA투어 '호반 서울신문 클래식' 시상식에 참석함.

7.26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 조직위원장 위촉식에 참석함.

■ 구월환 (전 연합통신 상무·전 세계일보 주필)

8.1 〈대한언론〉 8월호 '정치' 란에 《중징계 파동 계기 '이준석 정치' 분석… 똑똑한 AI가 '오징어 게임'하듯 정치》 집필.

8.1 〈憲政〉 8월호 기획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란에 《탈북어민 왜 강제 북송했나》 집필.

■ 김경희 (한국여성기자협회 회장·SBS 생활문화부 선임기자)

7.19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여성기자 정책 점검 프로젝트-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함.

■ 김광호 (경향신문 편집국장)

7.20 〈미디어오늘〉 2면에 《'디지털퍼스트' 1년, 경향신문 편집국장 "사라진 나침반 되찾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 실림.

■ 김균미 (서울신문 편집본부장)

8.5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신문 주최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주관 '제18회 생명공학 캠프, 신나는 생명공학 세상 속으로' 입소식에서 인사말을 함.

■ 김명식 (전 해외홍보원장·전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6.16 〈코리아해럴드〉 '김명식 칼럼' 난에 《Uneasy look at Yoon's new office in Yongsan》(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불안한 눈길), 6.30 《Keeping North Korea at a controlled distance》(새 정부의 과제, 북한과 적정한 거리 두기), 7.14 《Leadership crisis everywhere in pandemic-hit world》(리더십의 위기,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를 휩쓴다), 7.28 《New power needs to depart from past episodes》(신 정권, 과거사 집착에서 떠나라), 8.11 《Yoon stumbles in endeavor to improve China ties》(중국에 잘해보려다 저지른 윤 대통령의 실수) 집필.

■ 김성기 (전 국민일보 사장)

6.17 〈투데이코리아〉 '김성기 칼럼' 난에 《가계대출 금리 장사 정말 점검해야》, 7.1 《'이자 장사' 치부책 보는 건 관치 아니다》, 7.15 《탈원전 반성문이라도 똑바로 써라》, 8.5 《위기에도 감세 정책 흔들림 없어야》 집필.

■ 김수종 (뉴스1 고문·전 한국일보 주필)

7.13 인터넷신문 〈자유칼럼그룹〉 '김수종 2분 산책' 란에 《국정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8.12 《망고, 와사비, 커피, "더워 못살겠다"》 집필.

6.28 〈내일신문〉 '김수종 칼럼' 난에 《대통령의 반도체 관심과 인텔의 변화》, 7.12 《유럽발 에너지 공포》, 7.29 《살인적인 유럽 폭염, 그 후의 탄소 중립》, 8.9 《80세 대통령을 가진 미국의 고민》 집필.

■ 김승동 (한국 NGO신문 대표·전 CBS 논설위원장)

6.28 〈매일신문〉 '새론새평' 란에 《한동훈의 파격(?), 공직사회 상식으로 정착돼야》, 7.27 《100점짜리 인생과 100점짜리 골프》 기고.

■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전 KBS 사장)

7.9 〈매일경제〉 '매경춘추' 란에 《'웰다잉' 아십니까》, 7.18 《국회박물관》, 7.26 《홀인원 확률》, 8.3 《몽골 말타기》, 8.11 《지공대사?》 집필.

8.10 LG전자의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조직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과 함께 '2022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 예선전을 개최함.

■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

6.26 경기 포천힐스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BC카드 한경레이디스컵' 시상식에 참석함.

■ 김재홍 (서울디미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7.11 〈헤럴드경제〉 '김재홍 칼럼' 난에 《한반도 평화 불안 속의 '셀 코리아'》 기고.

7.12 국회의원과 민주화운동단체로 구성된 유신 50년 군사독재 청산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신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일 수 있는가: 유신헌법과 검찰의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함.

8.10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신 쿠데타를 통한 유사입법기구 제·개정 법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함. 김 회원은 '유신 청산 민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 중임.

■ 김종철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6.29 〈기자협회보〉 '책과 언론' 란에 《"묵묵히 자기 길 걸어가는 사람들은 제 거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별한 당신' 발간과 관련한 인터뷰 기사가 실림.

■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7.11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함.

■ 김지영 (동국대 대우교수·전 경향신문 편집인)
6.30 〈언론중재〉 여름호 'Journalism & Ethics' 난에 《나쁜 뉴스, 어떤 얼굴 하고 있나- 허위·과장·왜곡의 제목》 기고.

■ 김진배 (전 국회의원·전 동아일보 기획부장)
7.1 〈대한언론〉 7월호 '제헌절 기획 法을 생각하다' 난에 《法이란 이름의 폭력- 정의·민주 이름으로 무차별 폭력 지배》 집필.
7.1 〈憲政〉 7월호에 《제헌절에 다시 보는 헌법- 국회의장의 위상, 법 작동해야 확립된다》 집필.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문화일보 회장)
7.5 〈매일경제〉 '사람들' 난에 《잘못된 것, 후회의 기록도 남겨야 하지 않겠소》라는 제목으로 최근 발간한 자서전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 관련 인터뷰 기사 실림.
7.19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난에 《자료조차 北-南 순이었다…文 정권이 왜곡한 충격의 역사박물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57주기를 맞아 장세정 회원과 현장을 동행하며 전시물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함.

■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 소장·전 조선일보 기자)
8.1 〈憲政〉 8월호 '참전국 태국 방문기' 란에 《진혼곡 울리는 가운데 대한민국헌정회 화환 바쳤다》 기고.

■ 김충식 (가천대 특임 부총장·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23 CBS 라디오 '한판승부'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충식 "제5공화국, 비밀의 문은 정보권력 확보에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인터뷰를 함.
8.1 〈憲政〉 8월호 '책 소개' 란에 최근 출간한 저서 '5공 남산의 부장들' 서평을 담은 《전두환 시대의 '남산 부장들'》 기사 실림.

■ 김학순 (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교수·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0 〈내일신문〉 '김학순 칼럼' 난에 《선진국에 걸맞아야 할 공직 인사기준》, 7.4 《영국 최고 관료 헤이우드와 한덕수 총리》, 7.18 《'초심자 행운'이 가혹한 시험으로》 기고.

■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전 동아일보 회장)
7.4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공감〉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 란에 저서 《매헌 윤봉길 의사 평전》이 소개됨.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6.29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ABC 유료신문 부수 지표 활용 재논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6.30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를 방문해 시·청각 장애인의 TV 접근성 제품 개발 소개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함.
7.14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차관회의에 참석해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함.

■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6.29 〈기자협회보〉 2면에 《언론의 반복되는 실패,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라는 제목으로 김희원 회원의 페이스북 저널리즘 비평 연재 내용이 소개됨.
7.1 〈신문과 방송〉 7월호에 《한겨레 몰고 사태로 본 뉴스룸 민주주의- 뉴스룸 갈등보다 갈등의 부재가 더 문제다》 기고.

■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6.24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고려대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전쟁과 진화하는 국제질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함.

■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7.1 〈대한언론〉 7월호 '포커스' 난에 《호국보훈의 달, 尹 대통령의 '현충일 살려내기'-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국빈급' 의전》, 8.1 8월호 종합면에 《광복·건국 역사의 달 제언- '함보른 광산의 눈물' 등 교과서에 실어야》 집필.

■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재외동포저널 발행인)
6.24 〈강원일보〉 '피플 & 피플' 난에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심어주는 전쟁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전일 7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6·25 당시 학도병 참전 경험담을 바탕으로 안보 특강을 한 내용이 실림.
7.1 〈대한언론〉 7월호 2면에 6월 2일 서울 용산구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관저에서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는 무궁화 기념 식수 행사에 박 회원이 참석한 소식이, 8.1 8월호 1면에 《활력 休 충전- 경기 오산 문화역사탐방》에서 인사말한 내용이 실림.
7.21 〈문화일보〉 '100세 시대 名士의 건강법' 란에 《아침 40분 집 청소가 건강 비결, 저녁엔 1만 보 걸으며 근력운동도》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실림.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전 중앙일보 편집인)
6.22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관광산업 코로나19 극복,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7.8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국주간'에 참석해 스페인과의 관광교류 방안을 논의함.
7.29 주간지 〈시사저널〉에 《청와대 개방의 모든 것- "권력이 은밀히 누리던 靑 예술품, 국민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가 실림.

■ 박석흥 (전 문화일보 국장)
7.1 〈대한언론〉 7월호 '회우 광장' 란에 《신간: 김진현 회고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 언론계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 날카롭게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기고.

■ 박현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6.24 〈투데이코리아〉 '박현채 칼럼' 난에 《분질미와 식량안보》, 7.8 《원전 부활만이 능사가 아니다》, 7.22 《6차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 19》, 8.12 《갈수록 커지는 도심의 싱크

홀 공포》 집필.
6.16 〈내일신문〉 '내일시론' 란에 《7월 한은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밟나》, 6.30 《복합 위기와 '신 기업가 정신'》, 7.21 《깡통전세 속출, 서민 가슴은 멍든다》, 8.4 《반도체 전쟁 속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집필.

■ 방민준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6.27 〈골프 한국〉 '방민준의 골프세상' 란에 《'미소 천사' 전인지, 메이저 우승으로 돌아오다!》, 7.14 《볼에 대한 집착 '싹뚝'하니 스윙이 달라졌다!》, 7.25 《'골프 무상' 확인한 PGA 3M 오픈과 LPGA 에비앙 챔피언십》, 8.1 《'노마드' 김주형, 드디어 PGA 투어에 뿌리내리다!》, 8.8 《'PGA투어를 찢었다!' 김주형 윈덤 챔피언십 우승, 플레이오프 직행》 집필.

■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7.1 〈대한언론〉 7월호 '핫이슈' 난에 《'반쪽 봉합'으로 끝난 물류 파업 파장- 화물연대에 백기 투항…'떼법'에 밀렸다》, 8.1 8월호 '포커스' 난에 《'경찰국' 신설 논란…집단행동 파장- '공룡 경찰' 권력 남용 견제장치 필요하다》 기고.

■ 성기홍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
6.24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미·중·러 패권경쟁-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함.

■ 성낙오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우)
7.18 〈동우회보〉 13면에 《산 클럽 6월 1, 2차 북악산 산행- 기나긴 동면 깨고 새로 열린 청와대 뒷산 오르다》 집필.

■ 성대석 (한국언론인협회 회장·전 KBS 앵커)
7.15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사이버보안 모의해킹대회(WACON) 2022'를 개최함.
7.22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보안 모의해킹대회 시상식을 개최함.

■ 송상근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특임교수·전 동아일보 교육복지부장)
7.1 〈신문과 방송〉 7월호에 《퓰리처상 저널리즘 부문 리뷰- 우수 저널리즘은 진화한다》 기고.

■ 신용석 (인천 개항박물관 명예관장·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6.17 〈인천일보〉 '신용석의 지구촌' 란에 《기술협력으로 승화된 한미동맹》, 6.20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6.24 《한미동맹과 트루먼의 결단》, 7.1 《필립 구종 구청장과 정원오 구청장》, 7.8 《로버트슨 차관보와 한미동맹의 탄생》, 7.15 《한국언론의 재난 보도 관행》, 7.22 《기후 문제에 역행하는 미국의 대법원》, 7.29 《김진현 회고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 8.5 《누구를 위한 경인 전철 지하화인가?》, 8.12 《무개(無蓋) 화물트럭 시대 끝내야》 집필.

■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
7.18 〈동우회보〉 3면에 《民族 대변 東亞 100년, 자랑스러운 東友 100인〈끝〉- '33년 경영일선' 김병관, '社歌 작사자' 강인섭, '고바우 영감' 김성환, '외길 광고인' 김인호》, 12면에 《김진현 동우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 출간》 서평 기고.

■ 심의표 (전 KBS 해설위원)
7.1 〈대한언론〉 7월호 '방송비평' 란에 《얽히고 설킨 放送街 복마전- "물러나라" "임기 채우겠다" 낯뜨거운 설전》 집필.

■ 양재찬 (가천대 겸임교수·전 중앙일보 경제 전문기자)
6.27 〈내일신문〉 '양재찬 칼럼' 난에 《긴축의 시대 '이자 푸어'의 고통》, 7.11 《코스피지수 넘어선 휘발유값》, 7.25 《'앨라배마 효과'와 '울산 효과'》, 8.8 《양치기 소년의 '저출산 고령화' 경고》 집필.

■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7.9 〈국민일보〉 '인생의 나침반 된 성경 말씀' 난에 《세상 풍조 따르는 교회…'돌 제단'에 '쇠 연장'이 웬 말》 기고.

■ 이강덕 (KBS 기자)
7.24 한·미동맹재단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DC를 일주일간 방문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조찬 간담회 등에 참석함.

■ 이경재 (전 국회의원·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8.1 〈憲政〉 8월호 기획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란에 《'월북' SI 조작 은폐 '연평해전'과 똑같다》 기고.

■ 이광회 (조선일보 AD본부장)
6.16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2022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함.
6.23 밀레니엄힐튼 서울에서 열린 '2022 조선일보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함.

■ 이병국 (전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8.1 〈대한언론〉 8월호 '스페셜' 난에 《역대 대통령의 '말씀자료' 백태- 尹 대통령, 자유롭게 말하고 토의하는 회의 선호》 기고.

■ 이영성 (한국일보 사장)
7.25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 사옥에서 출범한 제7기 뉴스이용자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내실 있는 뉴스콘텐츠 평가 및 자문을 요청함.

■ 이재호 (극동대 교수·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6.21 〈아시아경제〉 '그건 이렇지요' 난에 《'동맹열차 탑승' 바른 결정이나 내릴 곳은 우리가 정해야》, 7.14 《정지 6개월 그에겐 행운의 시간…말(言) 화두로 씨름하라》 집필.
8.1 〈대한언론〉 8월호 '회우광장' 란에 《오~내 고향 광주, "어릴 적 빛고을 그 자체로 자긍심이었다"》 기고.

■ 이제훈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전 중앙일보 사장)
7.21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신한라이프 빛나는 재단으로부터 아동의 재능 발굴과 계발을 위해 장학금 10억 원을 지원받음.
7.27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이·취임식'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감사패를 받음.

■ 이종식 (전 조선일보 정치부장·부국장)
7.1 〈대한언론〉 7월호 '어떻게 지내십니까?' 난에 《續 실버파이팅- "헬스클럽서 운동… 뉴스 챙겨보며 지내지요》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가 실림.

■ 이종탁 (신한대 미디어언론학과 교수·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7.4 〈내일신문〉 '뉴스플러스' 난에 《정치 권

력의 방송 내로남불》, 8.1《어민 북송이 무슨 안보를 문란하게 했나》 기고.

■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6.29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창업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주고 수상자들을 축하해 줌.

■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
6.23 〈한국일보〉 '이준희 칼럼' 난에 《다시 5년 뒤를 생각하면》, 7.15 《너무 이른 지지율 추락의 이유》, 8.4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나》 집필.
7.4 한국일보 사우회보 〈韓友會報〉 '나의 特派員記' 란에 《폭동 산불 지진…LA 연쇄재앙 한복판서 진땀 취재》 기고.

■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7.11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공감경제' 란에 《세일즈 외교》, 7.25 《기후위기 시대, 원전의 역할》, 8.8 《지역 소멸 막으려면》 기고.

■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6.17 '윤석열 정부 출범과 대일외교'를 주제로 열린 제26차 한·일 비전 포럼에 참석함.
7.16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제8회 중앙 학생 시조백일장' 시상식에서 상을 주고 수상자를 축하해 줌.
7.29 서울 중구 HSBC빌딩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함.
8.2 중앙일보와 (재)한반도평화만들기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화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함.

■ 이형균 (아시아기자협회 이사장)
7.14 한국PR협회 명예회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상반기 업적을 검토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결정함.

■ 이홍우 (상명대 특임교수·전 동아일보 국장급 편집위원)
7.1 〈대한언론〉 7월호 4면, 8.1 8월호 3면에 4컷 만화 '오늘의 나대로' 게재.
7.18 〈동우회보〉 7면에 4컷 만화 '오리발' 게재.

■ 임종건 (ABC협회 회장·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6.27 인터넷신문 〈자유칼럼그룹〉 '임종건의 드라이펜' 난에 《월북 여부도 중요하지만…》, 7.28 《성과 생명과 쾌락》 집필.
7.1 〈대한언론〉 7월호 '회우 광장' 란에 《맛있는 추억- 어머니 손맛 같은 수제비》 기고.
7.19 문재인 정부의 ABC 제도 폐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ABC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전 한국일보 주필)
6.30 〈자유칼럼그룹〉 '임철순 담연칼럼' 난에 《수박을 먹으면서》, 8.2 《내 칼럼을 반성하는 칼럼》 집필.
6.27 〈광주일보〉 오피니언 면에 《우리도 세계적 콩쿠르와 음악회를》 기고.
7.20 인터넷경제신문 〈데일리임팩트〉 '즐거운 세상' 란에 《문제는 목구녕이여》, 7.27 《때려서 안 잊힌 선생님》 집필.

■ 정세용 (전 내일신문 주필)
7.28 〈내일신문〉 '정세용 칼럼' 난에 《서울대 법대 동문들의 공화국》 집필.

■ 정운종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6.30 경향 OB산악회가 엮은 《산이 좋아! 함께 25년》 편집인으로 참여하고, 산악회의 '창립과 태동'을 집필.

■ 정중헌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7.1 〈대한언론〉 7월호 'Culture&Life' 난에 《호국보훈의 달 문화계 明暗- '범죄도시 2' 관객 1000만…'국민 MC' 송해 별이 되다》, 8.1 8월호 같은 난에 《문체부, 청와대 활용 방안 이대로 좋은가?- 용도변경 땐 원형 훼손 역사·상징성 형해화 우려》 집필.

■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7.1 〈대한언론〉 7월호 '정진석 교수의 한국언론 年代記' 란에 《군사정부의 언론구조 개편- 언론 책임 강조, 조·석간 폐지 단간제》, 8.1 8월호 같은 난에 《언론사 시설기준 고시- 동아일보·한국일보 筆禍》 집필.

■ 조갑제 (조갑제닷컴·조갑제TV 대표·전 월간조선 대표)
6.23 〈월간조선〉 7월호 '조갑제의 시각' 란에 《한국 보수의 반성문!-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최종 勝者 된다!》, 7.19 8월호 같은 난에 《내가 만난 아베, '마지막 사무라이'의 삶과 죽음!》 집필.

■ 조창화 (전 KBS 보도국장)
8.1 〈대한언론〉 8월호 '회우광장' 란에 《맛있는 추억- 국내외 두루 누빈 나의 '冷麵 天下'》 기고.

■ 지해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8.2 〈주간조선〉 '차이나워치' 난에 《올가을 시진핑 '황제 정치'가 시작된다》 기고.

■ 차미례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7.13 〈내일신문〉 '차미례 칼럼' 난에 《스리랑카, 정신 나간 라자팍사 가문의 최후》 집필.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7.11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함.

■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6.14 〈동아일보〉 '동아광장' 란에 《지지층의 변심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 7.14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봐야 할까》, 8.9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 기고.
7.19 〈문화일보〉 'Deep Read' 면에 《정치 양극화로 '허니문' 없던 尹…'내재적 리스크'에 지지율 조기 급락》 기고.

■ 함혜리 (강원대 초빙교수·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6.20 〈서울신문〉 '건축 오디세이' 난에 《별헤는 밤 청년의 창가, 백 년 후 만난 그의 시선- 새롭게 문 연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 7.25 《인천 청라 하나금융 공동 직장어린이집- 세모 네모 '종이접기' 지붕, 실내 쏟아지는 햇빛에 아이들 까르르》 기고.

■ 홍선희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7.4 한국일보 사우회보 〈韓友會報〉에 《퇴사한 여기자들, 회우 정원 순례 모임》 기고.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6.26 〈디지털타임스〉 '홍성철의 세상읽기' 난에 《우려스런 尹대통령의 검찰 중심 생각》, 7.10 《또 재연된 "선거 때만 민주주의"》, 7.24 《광우병과 탄핵 선동의 기시감》, 8.7

《만5 세 입학 추진과 개혁 조바심》 기고.

■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6.28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년 2분기 국가고객만족도 1위 기업 인증식'에서 상패를 주고 기업대표 수상자를 축하해 줌.
7.13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함.
8.5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제15회 코리아 뉴라이트 스타일 어워드'에서 상을 주고 수상자를 축하해 줌.

■ 황경춘 (전 AP통신 서울지국장)
6.15 〈자유칼럼그룹〉 '황경춘 오솔길' 난에 《"혈압이 140 나오셨습니다"》, 7.15 《어찌 잊으리, 참혹했던 일제 강점기》, 8.16 《일본 추석에 맞은 8·15의 감격》 집필.

■ 황우연 (전 경향신문 도쿄특파원)
7.31 〈경향 사우회보〉 '여적' 란에 《윤석열 대통령 弔文 유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아베?》, '추모' 란에 《이어령 경향신문 논설위원·초대 파리특파원 소천 "나를 키운 8할은 경향신문이었다"》 기고.

■ 황호택 (카이스트 겸직교수·전 동아일보 전무)
6.28 〈아주경제〉 '황호택의 시선' 란에 《문화재가 된 청와대를 돌아보고》 집필.
7.18 〈동우회보〉 4면에 《개방 두 달 청와대 가보니- 솟을대문안 관저는 그야말로 '구중궁궐'》 기고.
8.9 〈아주경제〉 '황호택 칼럼' 난에 《중국 앞에서 약해지는 한국 외교》 기고.

■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김균미 (서울신문 편집인)
박현동 (국민일보 〃)
백기철 (한겨레 〃)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매일경제 대표이사)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총괄상무)
이성철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7.13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 월례포럼의 패널로 참석함. 이성철 회원은 사회를 맡음.

■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기획조정실장)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
6.21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에서 상을 주고 수상자를 축하해 줌.

■ 김진경 (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문화일보 회장)
허승호 (한국신문잉크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호택 (카이스트 겸직교수·전 동아일보 전무)
7.17 제헌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인촌 김성수 고택에서 민주공화제 헌법 초안을 마련한 인촌 선생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함.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문화일보 회장)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전 동아일보 회장)
6.30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 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을 주제로 열린 니어재단 창립 15주년 세미나에 참석함.

■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최홍운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6.20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책자 〈우리 곁에 왔던 성자〉 공동저자로 참여함.

■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최서영 (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사장)
5.15 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10월 발행 예정인 '언론계 거목들 4' 회의를 열고 인물선정 작업을 진행함.

■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정운종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7.1 〈대한언론〉 7월호 7면에 《호국보훈의 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듣는다- "미래 세대와 소통 '보훈 문화' 펼친다"》라는 제목으로 박기병 회원이 대담 진행을, 정운종 회원이 정리를 맡음.

■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6.20 프레스클럽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주최 '좋은 기사의 조건' 세미나에 참석함. 박재영 회원은 주제발표를, 배정근 회원은 언론학회 저널리즘 특별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음.

■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정구종 (동우회 회장)
5.25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동우회 임시총회 겸 단합대회에 참석함. 정구종 회원은 인사말을, 박제균 회원은 축사를 함.

■ 박준영 (전 전북지사·전 중앙일보 부국장)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7.19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우호 포럼- 한·중 문화융합산업과 투자 협력의 미래'에 참석함.

■ 서양원 (매일경제 대표이사)
손현덕 (〃 주필)
이동원 (MBN 전무)
7.20 경기 고양 삼송 MBN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삼송 MBN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함.

■ 양권모 (경향신문 편집인)
이원창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장정현 (경향신문 경영총괄 상무이사)
정운종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황우연 (전 경향신문 도쿄특파원)
6.23 서울 강북구 '용인가든 물 좋은 계곡'에서 열린 경향신문 사우회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함. 장정현 회원은 인사말과 경영상태 보고를 함.

■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전 효성 부사장)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7.2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에 참석함. 최영범 회원은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함.

회원동정

선임·위촉

■ 김기만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7.7 바른언론실천연대 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임됨.

■ 김대홍 (KBS 뉴스전문위원)
7.19 중앙대 언론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됨.

■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6.10 정기총회에서 6·25참전 언론인회 회장으로 유임됨.

■ 심의표 (전 KBS 해설위원)
7.26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제3기 중앙임원 출범식에서 고문으로 위촉됨.

■ 오종석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7.1 아주경제신문 사장에 선임됨.

■ 이경형 (전 서울신문 주필)
6.20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겸 동창신문 편집인으로 선임됨.

수상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8.12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기념 '제15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음.

■ 박병석 (전 국회의장·전 중앙일보 부국장)
7.14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 양권모 (경향신문 편집인)
7.11 서울대 출신 언론인모임인 관악언론인회(회장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에서 '제19대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받음.

■ 이정애 (SBS 논설위원실 미래팀 팀장)
4.20 '감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시리즈로 제55회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 뉴미디어웹 시리즈 금상 수상자로 선정됨.

결혼

■ 최홍운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7.17 아들 규완 군 결혼. 서울 강남구 아펠가모 선릉.

부음

■ 권혁찬 (데일리상생경제 대표)
6.30 모친상. 일산병원. 발인 2일.

■ 김명서 (서울이코노미뉴스 부회장)
7.3 장모상.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 김영석(국민일보 공공정책국 부국장)
7.24 모친상. 동아대병원, 발인 26일.

■ 박영태 (한국경제신문 바이오헬스부장)
7.11 장인상. 원광대 산본병원. 발인 13일.

■ 손병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7.31 모친상. 평촌 한림대병원. 발인 2일.

■ 신경렬 (TY홀딩스 미디어 담당 사장)
7.27 장모상.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 이계성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
7.18 장모상.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
7.9 모친상.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 이명건 (동아일보 편집국장)
8.14 장인상.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
8.14 장인상. 원광대병원. 발인 16일.

■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위원)
7.28 장인상.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 차준철 (경향신문 논설위원)
7.3 부친상.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5일.

기금지원 출판

■ 이현주 (KBS 기자)
7.22 《방송 스킬- 방송 필살기》 가쎄. 149×210㎜ 382쪽, 1만 8000원.

■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
8.8 《한국군의 두 얼굴》 북랩, 152×224㎜ 349쪽, 1만 6000원.

출판·출판기념회

■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전 동아일보 회장)
4.29 《매헌 윤봉길 의사 평전》 동아일보사, 152×222㎜ 488쪽, 1만 8000원.

■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6.25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공저) 중앙일보, 152×225㎜ 260쪽, 1만 8000원.

만화



이상 2022.6.16~8.15 현재

회원 동정·경조사 알려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동정과 경조사를 클럽 사무국에 알려 주십시오. 관훈통신을 통해 회원들께 널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732-0876
	737-0876
팩스	732-0877
이메일	kwanhunclub@naver.com
홈페이지	www.kwanhun.com

편집주간 칼럼

'꼰대 정치'의 위기 증폭 공식



서승욱
관훈통신 주간·
중앙일보 정치팀장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다…여러분들(기자들) 노는데 우리가 찍어보면 여러분들은 나오는 게 없을 것 같나."(8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7월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근 한 달여 동안 여권 핵심부에서 나온 문제 발언들 중 기자를 경악하게 만든 두 사례다. 출범한 지 고작 100여 일 된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기도 하다.

두 발언은 대형사고가 터진 뒤 해명 과정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의 말은 김성원 의원의 메가톤급 망언 뒤에 등장했다. 김 의원은 8월 11일 서울 동작구의 수해 봉사 활동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했다가 '도대체 제정신이냐'는 전국민적 비판을 불렀다. 그런데 주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김 의원을 감싸고 기자들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란 조롱성 패러디를 불렀던 권 원내대표의 발언도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해명이었지만, 그 해명이 도리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정권의 위기를 부추겼다.

잘못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술 더 뜬 두 사람을 두고는 "국민의힘 특유의 꼰대적 폐쇄성이 자기도 모르게 돌출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사고 발생→잘못된 해명→정치적 역풍과 논란 증폭'이란 범여권의 위기 증폭 공식이 비판에 열려있지 않은 고질적인 꼰대 근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런 대응들은 공감 능력 부재와 정치적 감수성 결여의 산물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수재민들, 취업 절벽에 내몰린 2030 젊은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었다면 "장난기" "높은 자리도 아니고~" 식의 해명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사실 윤 대통령도 이런 위기 증폭 공식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인선 실패를 따지는 지적에 "전(前)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라고 발끈했고, 이 발언 역시 지지율 하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민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는 살아남기 어렵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진박 감별사' 싸움으로 밤낮을 허비하다 보수 정치의 암흑기를 불렀던 국민의힘의 참혹했던 과거가 아직도 새록새록하다.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관훈통신

발행처/관훈클럽
언론인들의 연구 친목 단체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3호 04520
전화 732-0876, 737-0876
팩스 732-0877
이메일: kwanhunclub@naver.com
홈페이지: www.kwanhun.com
2022년 8월 19일 발행

운영위원
총 무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 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저널리즘책무실장
기 획 고희경 SBS 일반뉴스부 선임기자
회 계 신은진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대우
편 집 서승욱 중앙일보 정치팀장

감사
최광숙 서울신문 대기자 겸 공공정책연구소장
강석훈 KBS 통일외교부 기자

주간/서승욱

사무국장/육철수

편집위원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
권혜숙 국민일보 인터뷰 전문기자
민동용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조남규 세계일보 취재담당 부국장
김정곤 한국일보 뉴스룸국 뉴스부문장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농업전문기자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송수경 연합뉴스 정치부장
이동애 MBC 선거기획단장
박홍구 YTN 경제부 기자(부장급)

부국장/황태훈